

#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버스킹의 계절'이 돌아왔다



음악나무숲이 오구오락 길거리 음악회를 13일부터 양산호수공원 등에서 연다. 지난해 풍암호수공원에서 '우물안 개구리' 등이 버스킹하는 장면. <사)음악나무숲 제공>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 예술가가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버스킹'이 하나의 공연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오래다. 거리 공연 축제인 프리지 페스티벌의 성행, '버스킹 아티스트'를 표방하는 음악가들의 데뷔 등은 이를 방증한다.

(사)음악나무숲이 지난해에 이어 '오구오락(五區娛樂) 길거리 음악회'를 연다.

오는 13일(오후 4시) 양산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20일(4시·푸른길 공원), 27일(3시·광주FC 월드컵 경기장), 5월 4일(4시·수완 호수공원), 6일(3시·광주FC 경기장) 각각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지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 5개 지역구, 푸른 시민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길거리 음악회로 진행된다. 행사를 기획한 기획자 씨는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 예쁜 들꽃을 발견하면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번 버스킹 공연을 통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곡과 버스킹 공연에 어울릴 만한 기성곡으로 꾸며진다. 한중현의 '여행', 이미광 곡 '사랑'에 이어 김상운

## 음악나무숲, 오구오락 길거리 음악회 13일~5월 6일 양산 호수공원 등 하성관·김상운 등 지역 가수 무대

'벚꽃 날린다', 문성경의 '나무' 등 창작곡들을 선보인다.

2021년 오월창작가요제 장려상 등을 수상한 지역 기타리스트 '기드온'은 창작곡 '박수주세요'를 들려준다. "매마른 황야와 후텁한 밀림도 나와 함께 간다면 부드러운 무지개길(=)/와이파이안되는 새까만 우주도 나와 함께 간다면 영롱한 은하수길" 등의 노랫말은 일상적이고 낭만적이어서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나는 누구일까? 내일을 꿈꾸는가?"(봄여름가을겨울 '어떤 이의 꿈' 중)

봄여름가을겨울이 1989년 발표한 '어떤 이의 꿈' 등 비교적 많이 알려진 기성곡들도 들을 수 있



하성관

다. 또 '변해가네'와 '나의 노래',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 밖에도 3회 전일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방방방'의 하성관, 지역 싱어송라이터 김상운, 최근 첫 앨범 'Comin' Home'을 발매한 이광배 등도 무대에 오른다. 지역 신예 싱어송라이터인 문성경, 퍼커션 이정우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젊은 신예들과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온 기성 가수들이 한 자리에서 '올덴뉴(Old and New)'를 기치로 내걸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이색적인 감성과 아울러 신선한 조화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 씨는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인파가 많은 광주 FC 월드컵 경기장에서 2회 연속 공연을 기획했다"며 "이번 음악회가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곡과 음반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이윤홍 서예전 '서예, 촛불을 담다'



전시실에 부착된 다양한 작품들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뇌가 읽힌다.

### 22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이윤홍 서예가는 중학교 때부터 서예를 했다. 글씨를 쓰다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쓸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혔다. 고전에 나오는 사자성어, 금언 등도 좋지만 뭔가 다른 내용을 쓰고 싶었다. 고사성어가 진부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일테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글씨로 구현하고 싶었다.

서예가 이윤홍 서예전이 오는 22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관장 주홍)에서 열리고 있다. '서예, 촛불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전시의 현장의 외침을 붓에 먹물을 찍어 오롯이 화선지에 옮긴 것이다. 글씨를 쓰는 시간은 몰입의 시간이며 호흡으로 붓과 하나가 되는 환희의 순간이다.

주홍 관장은 "바람처럼 쓴 붓글씨를 듣고 조용히 서 있는 이윤홍 서예가를 만난 곳은 지난해 5·18 당시 고교생이었던 분들의 증언을 모아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자리였다"고 회고했다.

이 작가에게 붓으로 일필휘지로 호흡의 궤적을 남기는 과정은 마음을 수련하는 그 자체였다.

혹자는 이 작가의 서체를 '촛불연대체'라고 명한 바 있다. 촛불시민들과 함께해서 만든 서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에게는 '영광의 서체'일 것 같다. 그동안 그는 시위현장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을 만났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말을

듣지 않는 권력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권좌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붓을 들고 시민들의 외침을 담아 글씨를 나누게 된 것은 그런 연유다.

작가는 "법을 다루는 이들이 권력과 돈 가진 자들의 편에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등 불의한 현실에 끝까지 저항하는 민중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서예 작품을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 '촛불연대체'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전시장에는 마치 촛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걸려 있다. 멀리서 보면 일렁거리는 촛불의 형상을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촛불의 일렁임은 무명인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다가온다.

'역사를 누가 왜곡하는가', '행동하는 良心', '절규', '일갈', '눈물', '숨소리' 등 작품들은 역동적인 감정을 환기하는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물', '숨소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절망과 아픔이 투영돼 있다.

주홍 관장은 "이번 전시는 서예작품으로 탄생한 시민의 소리를 한곳에 모아 전시하는 자리"라며 "우리 시대의 발언과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기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작가가 직접 글씨를 써서 선물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상실·그리움 위로하는 '봄! 그리고 즐거움'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 27일 광주공연마루

상실의 그리움과 그 마음을 위로하는 대금 협주곡 '다향'부터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초소의 봄'까지. 다양한 협주곡과 관현악곡으로 채워지는 공연이 찾아온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지휘 박승희)이 '봄! 그리고 즐거움'을 오는 27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에 기획한 '광주 상설공연' 일환으로 마련된다.

시명 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발달거리 장단이 돋보이는 관현악협주곡 '축제'로 막을 연다. 이어 '아름다운인생 II PASSION'은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은 곡으로 피리 솔로가 멜로디를 이끈 뒤 4/4박자 롬바 리듬, 2/4박자 휘모리 리듬이 펼쳐진다.

아버지의 향기라는 뜻의 '다향'도 레퍼토리에 있다. 지원석이 작곡한 이 작품은 연인들의 애틋한 그리움을 가을바람에 빚낸 노래다. 대금에 송선명, 가야금 김하나, 신디 문경미 등.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 마스터시리즈 I '하트 오브 스톰' 공연 장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공>

북한 작곡가 공영송이 1965년 단소 독주곡으로 만들었다가 편곡된 플루트 협주곡 '초소의 봄'도 이목을 끈다. 전통음악의 신명과 생기발랄한 새들의 지저귀음을 닮은 플루트의 선율이 조화를 이룬다.

이 밖에도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간 구하는 대목을 코믹하게 구성한 노래곡 '난감하네', 흥보가 눈대목인 '박 타는 대목'을 모티브로 한 '시리

령 실근'은 고혜수가 부를 예정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영선 홍보 담당은 "제주 4·3사건, 4·19혁명, 4·16 세월호 참사 등 4월이면 '씻기 힘든 그리움'이 떠오르곤 한다"며 "봄날의 생명력이 깃든 '국악 연주곡'들의 향연이 '4월 슬픔'을 위로하고, 관객들에게 힘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황석영 '철도원 삼대', 영국 최고 권위 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 (사진)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의 최종후보(숏리스트)에 올랐다. 이 소설은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방대한 서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동자의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대작이다.

부커상 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철도원 삼대'의 영문판인 '마터 2-10' (Mater 2-10)을 포함한 최종후보작 6편을 발표했다.

황석영(81)은 '철도원 삼대'를 영어로 옮긴 번역가 소라 김 리셀(김소라), 영재 조세핀 배(배영재)와 함께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의 최종후보가 됐다.

다른 최종후보작 5편은 셀바 알마다(아르헨티나)의 '강이 아닌' (Not a River), 연데 포스트후마(네덜란드)의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What I'd rather not think about), 이아 켄베르크(스웨덴)의 '디테일' (The Details), 이타마 비에이라 주니어(브라질)의 '구부러진 쟁기' (Crooked Plow), 예니 에르펜벡(독일)의 '카이



로스' (Kairos)이다. 2020년 출간된 이 소설은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황석영의 필생의 역작이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인물들과 작가 특유의 입담이 어우러져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이 소설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어 현재까지 5만부 가량이 팔렸고, 해외 6개국에 번역 출판됐다.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은 오는 5월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작가와 번역가에게 모두 5만 파운드(약 8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